

‘랩하는 축구 선수’ 이순민, 더 높은 곳을 꿈꾸다

직접 작사·작곡 하는 ‘래퍼 위로’
지난 24일 전북전 선제·결승골
1부서 2년만 경기 수훈선수 선정
“정해지지 않은 곳 향해 오를 것”



“행복을 원하는 건 모순 같은 얘기지. 원한다면 가지면 돼 항상 내 옆에 있지. 중요한 건 만족을 못하는 그 마음가짐.”

올 시즌 전 경기에서 광주FC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순민이 마수걸이골에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만족감을 숨겼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래퍼로서 스스로 쓴 노랫말처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순민은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9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19분 팀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크로스를 준비하는 두현석을 보고 절묘하게 수비 틈을 파고들며 수비를 벗겨낸 뒤 센스 있는 백헤더로 골망을 갈랐다.

광주FC는 후반 추가시간 이견희의 썸기골까지 터지며 2-0 완승을 거뒀고, 이순민은 2021년 7월21일 강원전 이후 2년여 만에 K리그1에서 M.O.M.(수훈선수)에 선정됐다.

이순민은 경기 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득점을 터뜨려 기뻐고, 약속된 플레이를 바탕으로 팀으로서 만들어낸 골이기



광주FC 이순민(가운데)이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19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9분 팀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린 뒤 조카를 위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때문에 더 기뻐다. 앞으로의 시즌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저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득점인 만큼 이정호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고 하는데 축구는 감독 놀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정호 감독님과 있으면서 직접 느낀다”며 “리더의 역량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도 그만큼 받지만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감독님께서 세세한 부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경기를 이겨도 허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미팅에서 지적하고 수정하신다”고 설명했다.

팀으로서 만든 득점 이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뒤에는 손가락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순민은 “조카가 기분 좋을 때 손흥민

을 따라 하는 건데 네모난 모양을 못 만드니까 그렇게 한다”며 “제가 TV에 나오면 조카가 저를 알아본다. 골 넣으면 꼭 해주고 싶었다”고 조카 바보의 면모를 드러냈다.

올 시즌 두 번째 매진을 이룬 팬들을 향한 감사함도 표현했다.

이순민은 후반 35분 중원에서 좌측면까지 과감한 드리블과 함께 수비 세 명을 무력화했고, 송민규에게 파울을 얻어낸

뒤 만원 관중을 향해 환호를 유도했다. 이순민이 손짓을 하자 6000여 명의 관중들이 들썩이며 함성을 내질렀다.

이순민은 “올해 1부리그에 승격해서 어린 팬들과 어르신 팬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고, 관중 수가 늘어나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팀 경기 수준이 올라가니까 팬들이 더 많이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것 같다”고 자부심을 표했다.

또 “모든 팬들이 충분히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며 “제가 팬들을 향해 제스처를 하는 것은 선수로서 특권이자 홈경기의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찾아와주시고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순민은 래퍼 위로(wero)로서 직접 작사 및 작곡했던 노래인 제브라(Zebra)의 가사 중 ‘아직 많이 남은 길에 끝내 열망만의 시대’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도 밝혔다.

그는 “저는 매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선수라 자부하고 올해도 매 경기를 치르면서 그다음 경기는 분명히 더 발전해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저는 이미 낭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제 모습이 신인 시절의 꿈이었다”며 “힘들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은퇴할 때까지 정상을 정해놓고 삶을 살기보다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싶다”고 희망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도청 최세빈, 亞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

결승서 중국 45-40 제압... 2연패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이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빛 찰리기에 성공하며 국제대회 5연속 입상 성적을 거뒀다.

최세빈은 지난 22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전은혜(인천중구청)·윤지수·홍하은(서울시청)과 팀을 이뤄 출전해 금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부전승을, 8강전에서 싱가포르를 45-32로, 준결승에서 홍콩을 45-34로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개최국인 중국을 만나 45-4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해 멤버가 대폭 교체된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최세빈은 지난해 11월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지난 3월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금메달에 이어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5연속 국제대회 입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세빈은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만큼 오는 9월 예정인 제19회 항저우아시아인게임과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울 대표팀 총감독(전남도청 감독)은 “멤버가 대폭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한정미, 전국육상선수권 金... 올 3관왕

광주시청 한정미(사진)가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00m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한정미는 지난 24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400m 결승에서 55초9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에서 57초49를 기록하며 조 1위로 결승에 오른 한정미는 2위 김지은(전북개발공사·56초27)과 3위 이아영(광양시청



·56초78)을 각각 0.32초와 0.83초 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정미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5월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2023 예천 KTF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3관왕을 차지, 여자 400m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문화중, 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 2년 연속 우승

전주남중 101-96 꺾고 5전 전승
박주현 경기 운영 능력 돋보여
3년 연속 왕중왕전 진출 쾌거

광주 문화중 농구부가 2023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2연패 달성과 함께 3년 연속 왕중왕전 진출의 쾌거를 거뒀다.

문화중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광주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호남·대전·제주 남중부 E조에서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중은 지난 11일 군산중과의 첫 경기에서 115-83으로 이겨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후 17일 제주동중(123-53 승), 18일 대전중(98-71 승), 24일 전남 여천중(88-60 승)을 연파하고 4연승을 거뒀다.

문화중은 25일 전주남중과 마지막 경기에서 101-96으로 꺾고 1위를 기록했다.

문화중은 전주남중과의 경기에서 1쿼터를 32-25로 앞서나갔지만 2쿼터에서 숫난조를 보이며 46-56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전열을 가다듬고 나선 3쿼터에서 특유의 강점인 압박 수비에 이은 빠른 속공이 살아나면서 69-68, 1점 차로 재역전에 성공한 문화중은 4쿼터도 우세한 경기력을 펼치며 5점 차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문화중은 이날 승리로 5승을 거두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말리그 권역별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오는 8월 4-13일



광주 문화중 농구선수들이 25일 광주주고 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 호남·대전·제주 남중부 E조 전주남중과의 마지막 경기를 101-96으로 꺾고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문화중 제공

강원 양구에서 열리는 ‘2023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문화중은 2021년(2위)과 2022년(1위)에 이어 3년 연속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됐다.

문화중의 이번 우승은 주전 선수들의 우세한 체력과 탄탄한 조직력의 결과물로 보여진다.

특히 가드 박주현(3년)의 경기 운영 능력은 돋보였다. 드리블과 슈팅 능력은 물론 수비 능력까지 겸비한 박주현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7득점(경기당 평균 21.4점) 45리바운드 44어시스트 22스틸 1블록슛을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박주현은 “팀이 2년 연속 전승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감독님이 지도를 잘해주시고 팀원들 호흡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

가 나온 것 같다. 1학년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승에 일조해 더욱 기뻐다”며 “왕중왕전에서는 센터 김건우가 부상에서 회복해 합류할 예정이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찬영 문화중 농구코치는 “올해는 박주현과 정유민, 추유담 등 주전 선수들의 조직력이 어느 해보다 탄탄해졌고, 뛰는 농구를 목표로 동계훈련 과정에서 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피지컬 훈련을 열심히 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우리팀의 강점인 강한 압박 수비 후 속공 플레이에 의한 득점을 더욱 극대화시켜 왕중왕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동환 기자